



남원시, 2026년 양성평등기금위원회 개최

남원시는 5월 28일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을 수행할 민간 보조사업 단체와 사업비 배분을 확정하기 위해 '2026년 남원시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권익 증진 등을 위해 공모에 신청한 6개 민간보조사업 단체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했다.

올해 지원사업은 이번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 본격적으로 추진, 선정된 단체들은 지역 사회 내 양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 문화 행사, 가족 친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며 남원시의 양성평등 가치 실현에 앞장서게 된다.

남원시 김미옥 여성가족과장은 "양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심의를 통해 지역에 실질도입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읍시·전북과학대, 평생학습 지원 업무협약

정읍시는 28일 전북과학대학교와 손잡고 외국인 유학생들의 평생학습 기회를 늘리고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날 협약식은 전북과학대학교 본교 2호관 M직의역량존에서 열렸다. 현장에는 정읍시 인제양성과 소속 실무진과 전북과학대학교 국제교육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 정착형 인재를 기르는 생태계를 만들자며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번 협약은 최근 지역 안에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나는 흐름에 발맞춰 마련됐다. 이들을 위해 교육과 생활, 취업 분야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다지는 것이 핵심이다. 나아가 지역사회의 품격있게 연결된 지속 가능한 평생교육 환경을 가꾸려는 목적도 담았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을 돕는 여러 교육 과정을 함께 알리고 운영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각자가 지닌 교육 시설과 기자재를 공동으로 활용한다. 한국어 교육과 일상생활 적응을 돕는 과정을 연계하는 것은 물론 직업 능력을 키우고 취업이나 창업에 돕는 활동에도 힘을 모은다. /정읍=김대환 기자



용지면 복지기동대, 비닐가림막 제거 봉사활동

김계시 용지면 행정복지센터는 복지기동대(대장 이경민)가 28일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위를 앞두고 관내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해 겨울철 설치했던 비닐가림막 제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기동대원들은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비닐가림막을 안전하게 철거하고 창문과 출입문 주변 정리정돈까지 꼼꼼히 진행하며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대상자들의 안부와 건강 상태를 함께 살피며 생활 속 불편 사항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계=곽노태 기자

전북대병원, 유방암 환우회 '핑크라이프' 전북지부 창단

환우 간 정보 공유·심리 지원 강화... 건강한 사회 복귀 지원

전북대학교병원이 유방암 환우들의 정서적 지지와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한 환우회 '전북지부 핑크라이프'를 창단했다.

전북대병원은 28일 병원 GSK홀에서 열린 '유방암 환우 교육 및 심리지원 캠프'와 함께 유방암 환우회 창단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유방암 환우와 의료진,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 출발을 축하했다.

'전북지부 핑크라이프'는 암 치료 과정에서 겪는 신체적·심리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환우 간 의료 정보 공유와 정서적 지지를 확대하기 위해 결성된 순수 민간 환우 단체다. 보건복지부 등록 비영리 민간단체인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전북지부로 활동하게 된다.

환우회는 앞으로 유방암 전문의 초청 건강강좌와 숲길 걷기 등 치유 체육활동, 심리 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환우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복귀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방암 환우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이날 행사는 고대안암병원 고유회 수어팀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유방암 최신 치료와 예후, 치료 후 건강관리 강연, 전문의와 환자 간 질의응답, 유방암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행사 후 참석자들은 병원 뒤편 건지산 숲길을 함께 걸으며 치료 과정의 스트레스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도 가졌다.



윤현조 전북대병원 유방·갑상선외과 교수는 "유방암 치료에서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환우 간 연대가 의학적 치료만큼 중요하다"며 "핑크라이프 창단이 환우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미 전북지부 핑크라이프 회장은 "유방암 환우들이 혼자서 아니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며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응원하는 환우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양종철 전북대병원장은 "힘든 치료 과정을 이겨낸 환우들이 다른 환우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환우회를 결성한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환우들의 건강한 사회 복귀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남원시, 결혼이민자 하트맘 맺기 행사 개최

남원시는 지난 5월 27일 관내 결혼이민자들의 안정적인 한국 사회 정착을 돕고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누기 위한 결혼이민자들과 남원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결혼이민자 하트맘 맺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향을 떠나 낯선 한국 땅에서 생활하며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결혼이민자들과 지역 사정에 밝은 여성단체협의회원들을 1:1 멘토·멘티로 매칭해 주는 남원시의 대표적인 다문화 정착 지원 프로그램이며, 여성단체 회원들은 결혼이민자 10쌍 가족을 대상으로 '한국 정착 전도사'이자 '든든한 친정엄마(하트맘)'가 되어, 일상생활 속 애로사항을 귀담아듣고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인 생활 정보를 제공하였다.

특히 남원시는 오는 11월에는 하트맘과 멘티들이 다시 모여 '전통 고추장 및 한국 전통음식 만들기' 체험 행사를 진행하는 등 후속 프로그램도 촘촘히 마련했다.

한 결혼이민자는 "지역에 든든한 어머니와 이모가 생긴 것 같아 벌써부터 마음이 놓인다"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읍, 중동모경로당 '들꽃 천아트프로그램' 전시회

임실읍 중동모경로당 어르신들이 천과 들꽃으로 삶의 이야기를 담아낸 특별한 전시회를 열어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하고 있다.

임실읍 중동모경로당 어르신들은 지난 26일 임실읍행복복지원에서 '들꽃 천 아트프로그램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번 전시는 임실읍사무소 벽면 공간을 활용해 작은 예술 전시장으로 꾸며졌으며, 어르신들 손끝에서 완성한 천아트 작품들이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번 행사는 임실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하나로 마련됐다.

(주)거름이 주최하고 임실군이 주관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주민공모사업 지원을 받아 추진됐다.

프로그램은 지난 4월부터 약 6주 동안 진행됐다. 중동모경로당 어르신 10여 명이 매주 참여해 그림을 배우고 이야기를 나누며 정서적 안정과 심리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은 임실치즈테마파크 다래원의 엄난희 원장이



이끌었다. 어르신들은 천 위에 색과 선을 더하며 자신만의 '들꽃 천 아트'를 완성해 갔다. 특히 이번 전시는 지난해 진행된 '그림심리치료 프로그램 전시회'의 연장선에서 더욱 의미를 더했다. 처음에는 "내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나"며 손사래를 치던 어르신들이 이제는 직접 시를 짓고 작품의 주제에 어울리는 천아트를 구상할 정도로 자신감을 키워냈다.

작품에는 클로버와 풀꽃, 솜바귀, 민들레, 들국화, 질경이 등 들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꽃들이 담겼다. 흰 천 위에 피어난 들꽃은 어르신들의 삶과 기억, 따뜻한 마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임실=진충영 기자



남원소방서 의용소방대, 일산화탄소 안전교육 발표

남원소방서는 의용소방대 소속 형영임 대원이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일산화탄소 중독의 위험성과 예방 수칙'을 주제로 뜻깊은 안전 교육 발표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형영임 대원은 이번 발표에서 무색·무취의 특성으로 인해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일산화탄소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강조, 특히 일상생활이나 캠핑장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중독 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진행해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강조 사항에는 △밀폐된 공간 및 텐트 내 숯불·난방기구 사용 금지 △보일러 배기통 연결 부위 누수 점검 △난방기구 사용 시 주기적인 환기 △실내 및 텐트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의무 설치 등이 포함됐다.

형영임 대원은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지만, 작은 관심과 철저한 예방 수칙 준수만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남원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교육과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3일 등록(일간) 05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대표전화 288-9700 ·업무국 FAX 288-9703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임실지사 010-9642-2725
심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5-1227	진안지사 433-3064
서신지사 272-9417	송전지사 255-2404	남진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87
호지지사 010-6645-9335	팔복지사 253-6844	순창지사 653-0444	정수지사 010-3682-6157
	군산지사 010-8329-6677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4172-3800
	익산지사 659-9923	고창지사 563-6939	

※구독료 : 월13,000원, 1부 500원 인쇄인 김은주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게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